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22호【루계 제2438호】

주체106
(2017)년 5월
27일
토요일
음력 5월 2일

6.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앞당기자!

국가핵무력강화의 길에 울려퍼진 다발적, 련발적 뢰성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 형시험발사에서 또다시 성공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탄도탄시험발사를 참관하시였다

온 나라가 주체조선의 신형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2》 형시험발사의 대성공을 열렬히 축하하며 크나큰 격정과 환희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는 속에 부대실전배비를 앞둔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 형시험발사가 또한번 성과적으로 진행되여온 행성을 진감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현지에 나오시여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 형시험발사를 참관하시였다.

이번 발사는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 형무기체계전반의 기술적지표들을 최종확증하고 각이한 전투환경속에서 적응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부대들에 실전배비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동행한 일군들과 함께 감시소를 차지하시고 발사명령을 내리시였다.

천지를 뒤흔드는 요란한 동음을 장쾌하게 터뜨리며 《북극성—2》 형이 눈부신 섬광을 내뿜으며 만리대공을 향해 발사되였다.

발사된 탄도탄은 비상히 강화된 우리 국가의 존엄과 위상, 국력을 과시하며 5월의 맑고 푸른 하늘가에 승리의 비행운을 자랑차게 새기였다.

이번 발사를 통하여 리대식자행발사대차에서의 랭발사체계, 탄도탄의 능동구간비행시 유도 및 안정화체계, 계단분리특성, 대출력고체발동기들의 시동 및 작업특성들의 믿음성과 정확성이 완전확증되였다.

또한 핵조종전투부의 분리후 중간구간 조종과 말기유도구간에서의 모든 기술적지표들이 원격측정자료에 의하여 재확증되였을뿐아니라 전투부에 설치된 촬영기의 영상자료에 근거하여 자세조종체계의 정확성도 더욱 명백히 검토되였다.

이와 함께 탄도탄과 리대식자행발사대차를 비롯한 지상기재들을 실지전투환경속에서 그 적응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감시소에서 일군들과 함께 발사결과를 분석평가하시고 백점, 만점이라고, 흠잡을데없이 완벽하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탄도탄의 명중성이 대단히 정확하다고, 《북극성—2》 형탄도탄은 완전히 성공한 전략무기라고 긍지에 넘쳐 말씀하시면서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 형무기체계의 부대실전배비를 승인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탄도탄에 설치한 촬영기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수신되는 지구사진을 보시고 우리가 쏜 로케트에서 지구를 쭉 내려찍은것을 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온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인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 형의 전술기술적제원이 당에서 요구하는 목표에 확고히 도달하였다고 하시면서 이제는 빨리 다량계렬생산하여 인민군 전략군에 장비시켜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이 미처 정신차릴새없이 우리 핵무력의 다양화, 고도화를 더욱 다그쳐나가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하시면서 핵무력강화에서 나서는 전략적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의 령도에 무한히 충직한 우리의 믿음직한 국방과학연구부문과 군수로동계급이 나라의 자위적국방력, 핵억제력을 튼튼히 다져나가기 위한 투쟁의 길에서 굴함없이 계속혁신, 계속전진, 련속공격해나감으로써 적들에게 전률과 공포, 죽음을 들씌울 강위력한 우리 식의 주체무기, 핵공격수단들을 더 훌륭히, 더 많이 만들어내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 형시험발사를 또다시 성공적으로 단행한 전체 국방과학자, 기술자, 로동자, 일군들을 열렬히 축하해주시며 그들과 함께 력사에 길이 남을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본사기자

건설의 대번영기를 펼쳐주시여

최근년간 공화국에서는 사람들을 감동시키며 경이적인 건설신화가 련이어 창조되였다.

창전거리, 은하과학자거리, 마식령스키장,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룡악산비누공장, 과학기술전당, 각지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원, 중등학원들,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

미처 그 수도 다 셀수 없다. 새로 일떠선 현대적인 건축물들에는 대규모거리도 있고 공장들과 교육, 문화, 보건, 체육시설들도 있으며 비행장, 각계층 인민들의 웃음과 랑만이 흘러넘치는 물놀이장, 유원지들도 있다.

말그대로 공화국은 지금 건설의 대번영기를 펼치고있다. 새로운 평양속도, 만리마속도가 창조되는 속에 공화국은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시간마다 달라지는 전변의 새 모습들을 펼쳐가고있다. 공화국을 방문한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도 너무도 몰라보게 빨리 변모되여가는 공화국의 현실에 놀라움과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하다면 이것은 저절로 이루어진것인가. 이끌어주는 창조의 크나큰 손길을 떠나 건설의 대번영기를 말할수 없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건설은 국력과 문명의 높이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척도이며 우리 당의 인민적시책을 구현하기 위한 보람차고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건설의 대번영기로 새로운 건설력사를 창조하고 건설에서의 혁신의 봉화가 강국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비약의 불길로 세차게 타번지게 하여 부강번영의 새 시대를 펼쳐나가시려는것이 그이의 웅대한 구상이고 결심이다.

건설의 대번영기는 인민들이 하루빨리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도록 해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이 낳은 값진 열매이다.

공화국에서 일떠서는 창조물들을 보면 어느것하나 인민들과 련계되여 있지 않은것이 없다. 모두가 인민들의 복리증진과 문명을 위한것이다. 해마다 하나씩 일떠서는 큰 거리들도 과학자, 교육자, 로동자, 사무원들을 비롯한 인민들을 위한것이고 미림승마구락부나 과학기술전당도 인민을 위한것, 대규모문수물놀이장도 인민을 위한 물놀이장이다. 이번에 려명거리가 일떠서 수천세대에 달하는 교육자, 연구사, 과학자, 사무원, 로동자들이 궁궐같은 새 집을 무상으로 받아안은것도 공화국에서 건설분야에서의 기적과 혁신이 누구를 위한것인가를 가슴뜨겁게 웅변해주고있다.

언제나 인민생활향상에 첫째가는 관심을 돌리시고 인민을 위한 문명강국을 건설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기에 적대세력들의 제재압살책동이 우심한 조건에서도 인민사랑의 창조물들을 련이어 일떠세우시는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건설장들을 찾으시며 일군들에게 늘 강조하시는 선 편리성, 선 미학성도 인민들에게 사소한 불편도 없게 하면서 미학성도 최대로 보장하라는 요구이다.

그이의 인민사랑의 뜻과 정치를 받들어 공화국에서는 모든 건설물들을 이러한 기준에서 일떠세우고있다. 과학자들을 위한 은하과학자거리 하나만 보아도 살림집내부는 물론이고 학교와 병원, 공원, 도로 등 모든것이 주민들이 사는데 최대한 편리하게 설계되고 시공되였다.

이 땅의 이르는 곳마다에 일떠선 건축물들을 한곳에 다 모아놓는다면 그것은 숭고한 인민사랑이 집대성된 대건축군을 이룰것이다.

공화국에서 펼쳐지는 건설의 대번영기에는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비상한 창조적예지와 뛰여난 령도실력이 놓여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시대에 일떠서는 모든 창조물들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먼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을 선군시대의 대걸작들로 되고있는것이 특징이다. 보는것마다 황홀하고 눈이 부시여 누구나 감탄을 금치 못한다.

그것은 개별적인 몇몇 설계가나 시공단위의 능력이 뛰여나서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다. 한두개의 창조물도 아니고 일떠서는 모든것이 새롭고 독특하며 미래의 황홀한 선경으로 되고있는것은 창조와 건설을 진두에서 지휘하시며 건설의 대번영기를 펼쳐가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뛰여난 령도실력의 자랑찬 결실이다.

그이께서는 정치와 경제, 군사와 문화 등 모든 분야에 도통하시고 건설분야에서도 해당 전문가들도 따를수 없는 해박한 식견과 창조적예지를 지니고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건설물을 하나 일떠세워도 먼 후날에도 손색이 없을 만년대계의 기념비적창조물이 되도록 가르치심을 주시고 이끌어주신다.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도 그렇게 개건현대화된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여러차례 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고 150여건의 형성안도 보아주시며 주체성, 민족성, 독창성, 편리성, 조형예술성이 철저히 보장된 건축물로 일떠서도록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과 창조력의 높이만큼 시대상과 미래상이 비낀 창조물들이 이르는 곳마다에 즐비하게 일떠서고있다.

완공된 과학기술전당을 현지지도하신 그이께서는 과학기술전당은 완전히 새로운 공법으로 건설한 건축물이라고 하시면서 설계도 우리 식으로 하고 시공도 우리 식으로 한 우리 식의 건축물이며 당의 주체적건축미학사상이 훌륭히 구현된 기념비적창조물이라고 하시였다. 착상으로부터 설계와 시공, 마감처리에 이르기까지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지도가 어려있는 창조물들은 사상예술성이나 기능적측면에서 완벽한 건축예술의 걸작품들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무려 110여차례 형성안을 지도하여주신 문수물놀이장은 종합적인 문화정서생활기지로서의 사명에 맞게 아기자기하고 립체감이 나게 공간을 구성하고있다. 곡면과 류선형을 능숙하게 활용하여 특색을 살리였고 현대적인 설비들과 유리, 타일과 같은 마감건재들의 조화로운 배합으로 현대미를 강조한 하나의 건축예술전시장을 련상케 하고있다. 그곳을 돌아본 김택룡, 심청송을 비롯한 재중동포들은 다른 나라들에도 규모가 크건 작건 현대적인 물놀이장들이 있다, 그러나 문수물놀이장은 아기자기하게 모든 형상요소들을 구성하고 조화를 부린것이 독특하다고 감동을 토로하였다.

건설의 대번영기로 이 땅우에 인민들의 황홀한 문명이 꽃피는 사회주의강국을 하루빨리 안아오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으신 뜻이고 의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얼마전 인민군대안의 부대, 단위들에서 창안제작한 기공구, 마감건재품 및 과학기술성과전시회장도 돌아보시면서 건설의 대번영기를 더욱 빛내여나가는데서 전시회가 매우 중요한 계기로 된다고, 인민군군인들이 려명거리건설신화를 창조한 그 기세, 그 기백으로 새로운 건설기적, 건설속도를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참으로 이 땅에 펼쳐진 건설의 대번영기는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며 사회주의강국에로 줄기차게 치닫는 공화국의 눈부신 현실을 보여주는 축도이다.

인민사랑의 최고화신이시며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은 사회주의문명강국의 높은 봉우리를 향해 질풍노도치며 내달리고있다.

본사기자 리 설

조선의 억센 힘의 분출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형이 비상히 강화된 공화국의 존엄과 위상, 국력을 과시하며 5월의 맑고 푸른 하늘가에 또다시 승리의 비행운을 자랑차게 새기였다.

천지를 뒤흔드는 요란한 동음을 장쾌하게 터뜨린 《북극성—2》형이 눈부신 섬광을 내뿜으며 만리대공을 향해 발사되는 모습을 TV화면으로 본 공화국인민들은 크나큰 격정과 환희에 젖어있다.

이번 발사를 통하여 리대식자행발사대차에서의 랭발사체계, 탄도탄의 능동구간비행시 유도 및 안정화체계, 계단분리특성, 대출력고체발동기들의 시동 및 작업특성들의 믿음성과 정확성이 완전확증되였다.

또한 핵조종전투부의 분리후 중간구간조종과 말기유도구간에서의 모든 기술적지표들이 원격측정자료에 의하여 재확증되였을뿐아니라 전투부에 설치된 촬영기의 영상자료에 근거하여 자세조종체계의 정확성도 더욱 명백히 검토되였다.

현지에서 시험발사를 보아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탄도탄의 명중성이 대단히 정확하다고, 《북극성—2》형탄도탄은 완전히 성공한 전략무기라고 말씀하시면서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형무기체계의 부대실전배비를 승인하시였다.

며칠전 진행된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2》형시험발사의 대성공과 함께 이번에 또다시 거둔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형시험발사의 성공은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해 광분하고있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에게 힘으로는 조선을 절대로 굴복시킬수 없다는것을 다시한번 똑똑히 보여주었다.

지금껏 인류의 정의와 평화는 미국에 의해 무참히 짓밟혀왔다. 바로 힘이 약한데 있었다. 힘이 없는 정의는 주먹으로 눈물을 닦을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것은 우리 겨레의 수난사를 돌이켜보아도 잘 알수 있다.

비참했던 식민지망국사를 내놓고서라도 우리 겨레는 미국의 핵위협속에서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당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 미국의 원자탄이 투하되면서 그곳에 끌려가있던 수많은 조선사람들이 죽고 오늘도 피해를 호소하고있는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지난 전쟁시기 미국은 조선에 대한 원자탄사용계획을 공포하였다. 맥아더는 《조선북부에 동해로부터 서해에 이르는 방사능복도지대를 형성할것이다. 그 지대안에서는 60년 혹은 120년동안 생명체가 소생하지 못할것이다.》고 폭언하였다. 이로 하여 북으로부터 남으로 《원자탄피난민》행렬이 생겨났다.

이렇게 수백만명의 흩어진 가족친척들이 오늘도 북과 남, 해외에서 혈육들의 생존여부도 모르고 가슴허비며 살고있다.

미국은 1950년대부터 남조선에 수많은 각종 핵무기들을 끌어들이고 공화국을 항시적으로 핵위협해왔다. 현세기에 들어와서는 공화국을 《악의 축》으로 지명하면서 핵선제공격대상에 올려놓고 온갖 위협과 압살공세를 가하였다.

핵소동과 《인권》소동… 이렇게 끊임없이 문제를 만들어 전조선반도를 타고앉아 동북아시아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려는것이 미국의 기도이다.

리념과 제도가 다르다고 하여, 저들에 추종하는 나라가 아니라고 하여 수십년간이나 적대시하면서 대조선압살에 매달려온 횡포무도한 미국이다. 그 미국의 손에는 오늘도 세계에서 제일 많은 핵무기들이 쥐여져있다. 그러면서도 자위를 위해 만든 핵을 포기하라며 갖은 비렬한 소동에 매달리고있다.

그러나 강도가 무장을 버리라고 위협한다고 해서 그것을 버릴 공화국이 아니다.

공화국의 핵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존엄이고 생명이다. 더우기 미국의 침략위협에 맞서 동방의 핵강국, 아시아의 로케트맹주국으로 발돋음한 공화국이 오늘에 와서 그 전략적지위를 포기한다는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이다.

미국은 공화국이 핵을 포기하리라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공화국은 미국이 부당한 적대시압살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핵위협에 계속 매달리는 한 자위의 억제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해나갈 의지를 이미 명백히 천명하였다.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2》형시험발사의 대성공에 이어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형시험발사를 련이어 진행하여 또다시 대성공을 거둔것은 공화국의 억센 정의와 자위의 의지를 그 누구도 꺾을수 없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형이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다량계렬생산에 들어가 전략군부대들에 실전배비되게 됨으로써 공화국의 핵공격능력은 훨씬 더 강화되게 되였고 인민의 만복이 꽃펴나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길에서는 보다 넓은 앞길이 열리게 되였다.

본사기자 김 춘 경

현지지도에 비낀 위인의 거룩한 세계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강한 민족적자존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은 이 세상 그 어느 정치가도 따를수 없는 강한 민족적자존심을 지니신 회세의 정치가이시다. 그이께서 하시는 말씀 마디마디에서, 펼치시는 정치에서 강한 민족적자존심이 넘쳐흐르고있다.

지난 1월정초에 새로 건설된 평양가방공장을 현지지도하실 때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폭포처럼 쏟아지는 갖가지 가방들을 보시면서 설비의 국산화비중을 95%이상 보장한것은 대단한 성과이라고, 우리가 일떠세운 공장에서 우리의 원료와 자재를 가지고 우리의 손으로 만든 가방을 우리 아이들과 인민들에게 안겨주게 되였으니 얼마나 좋은가고, 별세상에 와본것같은 오늘을 잊지 못할것 같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지난해 8월 어느 한 기계종합공장을 찾으시였을 때에는 우리의 머리로 설계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든 기계제품이 여서 볼수록 소중하고 귀중한 재부처럼 느껴진다고,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자원에 의거하여 우리 식의 현대적인 기계제품들을 만들어내는 사업은 민족적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현지지도하시는 단위마다 설비와 자재의 국산화가 높이 실현된것을 보시면 그처럼 기뻐하시는것은 그이께서 지니신 높은 민족적자존심을 떠나 말할수 없다.

그이의 높은 민족적자존심은 투철한 자주적신념에 뿌리를 두고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걸으신 자주의 길을 변함없이 끝까지 걸어가시려는것은 그이의 확고부동한 신념이고 의지이다. 자주의 길은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고 더욱 빛내여가는 참다운 애국의 길이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 누가 공화국의 자주권과 우리 인민의 존엄과 리익을 침해하는데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으신다.

주권국가의 자주적권리를 당당히 행사하며 인공지구위성을 쏴올리고 자위의 억제력을 계속 강화해나가는데 대해서 적대세력들이 갖은 시비중상을 하고 제재와 압박을 가해오고있지만 추호의 흔들림없이 국가의 자주권과 리익을 지키기 위한 정의의 한길로 공화국을 이끌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려명거리건설로 제재와 압박을 부르짖는 적대세력들의 정수리에 된매를 안기시고 자력자강의 힘을 온 세상에 떨쳐주신것도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지난 3월중순 완공을 눈앞에 둔 려명거리건설장을 또다시 현지지도하실 때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일떠서는 려명거리는 미제와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강대한 나라를 기어이 건설하려는 우리 당의 구상이 반영된 거리, 우리가 일단 마음먹은것은 다할수 있고 우리 식대로 남들이 보란듯이 잘살수 있다는것을 온 세상에 떨치는 로동당시대의 선경으로 높이 솟아 빛날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강한 자주적신념과 배짱은 얼마전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2》형시험발사를 진행하여 대성공한데 련이어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형시험발사에서도 특기할 대성공을 거둔 공화국의 경이적인 사변들에도 력력히 어리여있다. 《북극성—2》형의 최종시험발사를 지도하시는 자리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 누가 인정하든말든 우리 국가는 명실상부한 핵강국이라고, 핵없는 나라, 힘이 약한 민족만을 골라 군사적으로 롱락하는 비겁한 미국식허세는 우리에게 통하지 않으며 미국이 우리 국가를 반대하여 감히 군사적도발을 선택한다면 기꺼이 상대해줄 준비가 되여있다고 단호히 선언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니신 높은 민족적자존심은 귀중한 사회주의조국과 사랑하는 인민을 온 세상이 우러러보는 시대의 상상봉에 우뚝 올려세우실 숭고한 애국애민에도 바탕을 두고있다.

두해전 국가우주개발국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곳의 해발고는 비록 높지 않지만 우리 민족의 존엄이 응축되여있는것으로 하여 세상에서 제일 높은 곳이라고 하시면서 평화적인 우주개발은 선군조선의 합법적인 권리라고, 민족의 존엄과 자존심을 걸고 진행하는 중대사인 우주개발분야에서도 최첨단을 돌파하려는것은 자신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라고 하시였다.

지난 1월 짧은 기간에 개건현대화된 류경김치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도 그이께서는 날로 높아가는 우리 인민들의 문명수준에 맞게 김치를 맛있게 만드는것은 민족음식문화를 발전시키는데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민족전통음식이며 세계5대건강식품으로 유명해진 김치를 세계에서 으뜸가는 식품으로 당당히 자랑할수 있게 생산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 지향하시는것은 국력에서도 강하고 인민들이 세상에 부러운것없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는 사회주의강국이다.

지금 공화국의 승리적전진이 빨라질수록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 더욱 발악적인 공세에 매달리고있다.

하지만 어려워도 힘겨워도 기어이 자력으로 강국을 일떠세우려는것, 적대세력들이 제아무리 압력과 제재소동에 매달린다 하여도 우리 힘으로 번영의 길을 열어나갈수 있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드높지 않는 배짱이다.

머지않아 세인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이 사회주의강국을 보란듯이 일떠세워 자기의 민족적자존심과 국제적위치를 만방에 떨쳐가는 자랑찬 현실을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철진

스무번째의 년륜을 새긴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제20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가 진행되였다.

조선국제전람사의 주최하에 해마다 봄과 가을철에 평양에서 열리는 국제상품전람회는 나라들사이의 경제관계와 지역의 경제발전을 추동하는 권위있는 국제적인 경제회합으로 되고있다.

이번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는 시기적으로 볼 때 매우 복잡한 국제환경속에서 진행되였다.

공화국의 정정당당한 자위적억제력강화조치에 대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유엔결의위반》이니, 《위협》이니 걸고들며 전례없이 악랄한 대조선제재와 봉쇄, 군사적위협소동에 매달리고있다. 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공화국에서 열린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는 성황을 이루었다.

이번 전람회에는 중국과 웰남, 이딸리아, 벨라루씨, 이란, 꾸바, 인도네시아, 로씨야, 뉴질랜드, 오스트랄리아, 타이, 싱가포르, 중국 대북을 비롯한 수많은 나라와 지역의 회사와 기업관계자들이 공동의 부흥과 발전, 친선과 협조의 리념을 안고 참가하였다.

전람회장에는 첨단기술이 도입된 전기 및 전자설비, 륜전기재, 의약품, 일용품, 식료품을 비롯한 각종 우수한 제품들이 출품되여 참관자들의 인기를 모았다. 국내외의 수많은 단위들에서 출품한 제품들이 너무 많아 1~2층도 모자라 야외에까지 전시매대들을 설치할 정도였다.

이번 국제상품전람회에서는 기업체들사이의 경제기술적교류와 무역거래를 발전시키기 위한 설명회와 면담, 제품소개 등도 활발히 진행되였다.

유럽의 한 기업관계자는 전람회에 처음 참가하였다고 하면서 《날로 더욱 발전하는 조선의 모습에 놀라움을 금할수 없다. 조선은 투자조건과 전망이 대단히 좋다.》고 자기의 소감을 터놓았다.

다른 기업관계자들도 지금 미국을 비롯한 일부 발전되였다고 하는 나라들로 인해 불평등한 무역관계가 맺어져있는데 이것을 자주성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로 바꾸고 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이룩하는데서 평양국제상품전람회가 큰 역할을 하고있다, 앞으로 평양에서 열리는 국제상품전람회에 계속 참가할 의향을 표시하였다.

기자와 만난 박웅식 대외경제성 국제전람국 국장은 《이번 전람회기간에 다른 나라 기업들과 우리 나라의 많은 회사들사이에 여러 방면의 투자방안이 론의되고 합의서, 계약들이 체결되였다. 이를 단순히 고객들에게 자기의 상품을 더 많이 광고하고 판매하기 위한것으로만 볼수 없다고 생각한다. 적대세력들의 초강도제재에도 끄떡없이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우리 조국의 막강한 경제적위력에 대한 확신이 여러 나라 기업인들을 전람회장으로 떠민 추동력으로 작용했다.》고 말하였다.

적대세력들의 끈질긴 고립압살책동속에서도 자주와 평등, 호혜의 원칙에서 많은 나라들과의 경제기술적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데서 이번 전람회는 큰 의의를 가지였다.

본사기자 홍범식

기다리는 《고주몽》의 련속편들

조선 4.26만화영화촬영소를 찾아서

최근 조선중앙TV에서는 새로 나온 력사만화영화 《고주몽》이 사람들속에서 커다란 인기를 끌고있다. 우리 민족의 력사에서 천년강국으로 빛나는 고구려를 건국한 고주몽에 대한 력사이야기이고 내용도 흥미진진하게 엮어져있어 보는 사람마다 볼맛이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있다. 이 만화영화를 보느라면 작품의 세계에 저절로 빠져들게 되고 세월을 거슬러 고구려를 건국하던 아슬아슬한 일들을 직접 눈으로 보는것같은 심경에 빠진다.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 자리잡은 조선4.26만화영화촬영소에서는 지금 이 만화영화창작이 한창이다. 취재차로 이곳 촬영소구내에 들어선 우리의 눈에 먼저 안겨든것도 《만화영화 〈고주몽〉을 시대의 명작으로!》라고 큼직하게 씌여진 속보판이였다.

우리는 력사만화영화 《고주몽》의 김경호 총연출가를 만났다. 평양미술대학(당시) 졸업생인 그는 력사만화영화 《고주몽》에 대한 창작과정에 대해 설명해주었다.

력사만화영화 《고주몽》에 대한 창작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고 한다. 한것은 고구려이전시기의 력사적사실에 대해 서술한 문헌사료가 적었기때문이였다. 그런것으로 하여 창작가들은 당시 인물들의 용모와 성격을 파악할수 없었다. 하지만 이들은 력사주의원칙에서 고대, 중세시기의 력사를 파고들어 고주몽과 관련한 자료와 일화, 전설 등을 폭넓게 확인하면서 창작활동의 밀천을 마련해나갔다. 그리고 력사학자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작품의 종자해명에 이바지하는 사건선과 인물들의 성격을 완성해나갔다.

창작가들의 고심참담한 노력에 대한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만화영화창작실로 걸음을 옮겼다.

그곳에서는 한창 창작가들이 역인물들의 움직임을 생동하게 형상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시청자들이 웃음속에 맞고보내는 만화영화의 한순간의 장면창작을 위해 바쳐가는 창작가들의 지혜와 열정은 헤아릴수 없었다.

력사만화영화창작에서 일명 《영화배우》로 불리우는 원도미술가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바로 이들에 의해 력사만화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형태와 성격, 형상세부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형상들이 규제되기때문이다. 하기에 이곳 원도미술가들은 부단히 현실에 나가서 연구를 심화시키고 거울앞에서 연기도 해보면서 역형상과제를 수행한다고 한다.

이어 우리는 합성록음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가 들어섰을 때 이곳에서는 한창 록음사들이 새로 창작되는 력사만화영화 《고주몽》의 련속부에 대한 록음합성을 진행하고있었다. 합성록음실의 맞은켠 유리칸막이로는 TV화면에 펼쳐지는 만화영화의 장면들을 보면서 맡은 역인물들의 행동을 흉내내며 대사록음을 하는 배우들의 모습이 흥미있게 안겨왔다. 이들은 각이한 목소리로 혼자서 3~4명의 역을 맡아하면서 매 인물들의 구체적인 성격과 기질에 맞는 소리색갈, 말투들을 형상하고있었다.

어디에 가나 창작열에 불타

김경호

는 이곳 종업원들의 모습뿐이여서 촬영소안의 공기마저도 뜨겁게만 느껴지는 일터였다.

김경호 총연출가는 력사만화영화 《고주몽》에 대한 반향은 대단하다며 그에 자만함이 없이 《고주몽》의 련속편들을 명작으로 만들기 위해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나가겠다고 말하였다.

현재 력사만화영화 《고주몽》은 13부까지 TV로 방영되면서 갈수록 시청자들의 인기를 더욱 끌고있다. 우리는 만화영화의 다음부들이 앞으로도 시대의 명작으로 련속 창작되여 시청자들에게 기쁨을 주리라는 기대를 안고 촬영소구내를 나섰다.

본사기자 김철호

통일대회합으로 향한 겨레의 열망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개선에 대한 온 겨레의 지향과 요구가 그 어느때보다 높아가고있는 오늘 민족의 통일념원에 발맞추어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하루빨리 열어나가기 위하여서는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반드시 실현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상과 제도, 지역과 리념, 계급과 계층의 차이를 초월하여 활발히 접촉하고 래왕하며 북남당국을 포함하여 각 정당, 단체들과 해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이 참가하는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현시기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하루빨리 개최하는것은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북남관계개선과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절박한 과제로 나서고있다.

지금 북남관계는 내외반통일세력의 악랄한 도전과 방해책동으로 말미암아 최악의 파국상태에 처해있다. 극단적인 대결의 지속으로 전쟁접경에까지 이른 현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자주통일의 넓은 앞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방도의 하나가 바로 북남당국을 포함하여 각 정당, 단체들과 해내외의 각계층 동포들이 참가하는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하루빨리 개최하는것이다.

공화국은 이미 지난해에 조국해방 일흔한돐을 계기로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개최할것을 제안하였으며 그 실천적조치의 일환으로 북측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남조선과 해외의 당국, 정당, 단체 및 개별인사들에게 공개편지를 보내였다.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개최할데 대한 제안은 적대와 반목, 대결과 충돌로 얼룩진 과거와 단호히 결별하고 북남관계개선과 자주통일의 새로운 출로를 열어나가려는 애국애족적일념으로부터 출발한것이다.

그러나 남조선의 이전 박근혜《정권》은 공화국의 련석회의제안을 《위장평화공세》니, 《통일전선전략》이니 뭐니 하고 헐뜯으면서 공동실무회의에 참가하였던 남측성원들을 처벌하는것과 같은 파쇼적폭거까지 저질렀다.

하지만 보수패당의 그 어떤 발악적인 책동도 민족적화합과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의로운 투쟁에 떨쳐나선 남조선인민들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하였다.

올해에 들어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로동자, 농민, 청년, 녀성, 종교 등 남조선 각계층 단체들은 7.4공동성명발표 마흔다섯돐과 10.4선언발표 열돐이 되는 뜻깊은 해에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성대히 개최하여 조국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놓을것을 결의하고 그 실현을 위한 준비사업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지난 1월 12일 전민족대회 부산지역준비위원회가 결성된데 이어 조국의 평화와 통일, 북남관계발전을 위한 청년학생통일대회 남측준비위원회가 조직되였으며 련이어 19일에는 서울에서 각계층 단체대표들과 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조국의 평화와 통일, 북남관계발전을 위한 전민족대회 남측준비위원회 결성식이 진행되였다.

서울과 광주, 경상남도를 비롯한 각 지역들과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등 계층별 단체들속에서도 준비위원회들을 내오기 위한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있다.

전세계근로자들의 국제적명절인 5.1절 127돐에 북과 남의 로동자들은 《조국의 평화와 통일, 북남관계발전을 위한 전민족대회 북남로동자단체준비위원회》 결성식을 진행하고 올해에 기어이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성사시켜나가는데서 로동자들이 앞장에 설 결의를 다지였다.

해외에서도 지난해 12월 전민족대회준비를 위한 북, 남, 해외 공동실무위원회 해외측실무위원회를 내온데 이어 지역별 실정에 맞게 전민족대회성사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고있다.

민족의 근본리익을 중시하고 북남관계의 개선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와도 기꺼이 손잡고 나아갈것이라는것이 공화국의 변함없는 립장이다. 지금 북측준비위원회에서도 전민족대회준비를 위한 사업들이 각계의 지지성원속에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오늘날 조선민족을 위하고 겨레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어디에서 살든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개최를 위한 애국애족의 길에 나서지 못할 하등의 리유가 없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조국통일의 큰뜻을 앞에 놓고 사상과 리념, 정견의 차이를 뛰여넘어 단결하여야 하며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의 실현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하여 뜻깊은 올해에 북남당국을 포함하여 각 정당, 단체들과 해내외의 각계층 동포들이 참가하는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기어이 성사시킴으로써 민족의 자주통일운동에서 획기적전환을 이룩해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김 철 민

재일동포단체들 제2의 6.15시대를 열어나갈것을 호소

《재일한국민주통일련합》과 《재일한국청년동맹》, 《재일한국민주녀성회》, 《재일한국인학생협의회》가 공동으로 광주인민봉기 37돐을 맞으며 제2의 6.15시대를 열어나갈것을 호소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광주인민봉기의 투쟁정신은 1987년 6월민주항쟁을 거쳐 마침내 노도의 초불혁명으로 분출하여 《국정》롱락과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만고죄악의 신기록을 세운 박근혜를 파면, 구속으로 몰아넣은 초불의 승리를 이룩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성명은 새 《정부》는 교착된 남북관계를 6.15공동선언 등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회복하는것부터 시급히 서둘러야 한다고 하면서 력대 보수《정권》을 퇴진시키고 6.15공동선언실천을 요구해온 국민은 자주, 민주, 통일로 이어지는 큰길로 힘차게 나아갈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본사기자

다시 찾아야 할 6.15 (6)

겨레의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진—《우리 민족끼리》

《조국—》, 《통일—》
《우리는—》, 《하나다—》
《우리—》, 《민족끼리—》

이것은 2002년 남조선의 부산에서 열린 제14차 아시아경기대회기간 북측 응원단의 힘찬 웨침에 남측의 관중이 터쳤던 6.15시대의 격동적인 화답이다.

우리 민족끼리는 6.15공동선언의 근본핵으로서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북과 남의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갈데 대한 민족공동의 통일리념이다.

6.15공동선언은 바로 우리 민족끼리의 선언이였고 6.15자주통일시대는 우리 민족끼리의 시대였다.

우리 민족끼리, 이전에는 평범하게만 여겨지던 이 말은 6.15공동선언의 발표와 더불어 6.15자주통일시대를 상징하는 시대어로 되였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가진 단일민족의 공통성, 우리 민족끼리의 대의앞에서 북과 남의 계급이나 계층의 차이가 없었다. 오직 피줄도, 언어도, 문화도, 력사도 하나인 하나의 민족만이 있었다.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끼리!

북과 남은 대화를 해도 이 정신에 기초하여 했고 통일행사도 이 리념아래 성대히 진행하였으며 경제협력사업도 이 정신으로 하였다.

6.15자주통일시대에 북과 남사이의 접촉과 대화는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녀성, 예술인, 지식인, 종교인을 비롯한 각계층과 각당, 각파가 모두 참가하는 우리 민족끼리의 접촉과 대화로, 우리 민족모두의 의사를 한데 모을수 있는 전민족적인 접촉과 대화로 확고히 전환되였다. 특히 북남당국사이의 대화가 체면주의와 말싸움이라는 고질적병폐를 털어버리고 통일지향적인 대화로, 우리 민족끼리의 결실있는 대화로 되여 겨레의 박수갈채를 모았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아래 북과 남사이에는 6.15공동선언발표를 기념하는 민족통일대토론회와 민족통일대축전, 평화와 통일을 위한 3.1민족대회, 8.15민족통일대회 그리고 계층별 통일대회 등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들이 해마다 대성황리에 진행되였다. 이 모든 통일행사들은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의 기치밑에 우리 민족끼리 손잡고 통일의 문을 열어나가려는 겨레의 확고한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는 선언문, 호소문, 성명 등 공동문건들을 만장일치로 채택발표하였다.

우리 민족끼리리념은 북남협력사업의 새로운 장도 펼쳐놓았다.

6.15자주통일시대에 북과 남이 이루어낸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련결착공식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면 이 세상에 허물지 못할 장벽이란 없다는것을 다시한번 힘있게 과시하였다.

분계연선의 개성공업지구에서는 북남경제협력의 동음이 힘차게 울려퍼지고 지난 시기에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군사분계선 륙로통행도 진행되였다.

2003년 2월 군사분계선을 꿰지르며 민족의 명산 금강산에 대한 시범륙로관광이 진행될 당시 남녘의 한 언론은 이렇게 전했다.

《민간인이 판문점을 통해 군사분계선을 넘은 일은 있었지만 판문점외의 군사분계선통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판문점으로는 기껏해야 한두명씩 통과했지 이번처럼 대규모인원이 넘은것은 역시 처음이다.》

반세기이상 반목하고 질시하던 북과 남사이에 분렬과 대결의 상징인 군사분계선상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이 낳은 또 하나의 자랑찬 결실이였다.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열풍, 자주통일열풍속에 평양에서 성대히 개최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관람하기 위해 2005년에는 한달남짓한 기간에만도 근 1만명의 남녘동포들이 북을 다녀갔다. 공연을 관람한 그들은 한결같이 《〈아리랑〉 공연은 제2의 6.15공동선언》,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체육예술의 최절정》, 《세계최고의 멋쟁이 공연》, 《21세기를 대표하는 세계최대의 걸작》이라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였다. 비애의 《아리랑》, 망국의 《아리랑》이 《강성부흥아리랑》, 《통일아리랑》으로 울려퍼진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이 우리 민족끼리시대에 민족이 함께 부르는 《아리랑》으로 된것이다.

우리 민족끼리의 함성 드높이 남조선과 해외에서 진행된 여러 국제경기대회들에서도 북과 남의 선수들이 아리랑곡조가 울리는 속에 통일기를 앞세우고 공동입장하여 우리 겨레의 끓어오르는 통일열기를 내외에 힘있게 과시하였다. 2002년 부산에서 진행된 제14차 아시아경기대회와 2003년 제주도에서 진행된 북남민족통일평화체육문화축전때에는 백두산과 한나산에서 채화된 성화가 하나로 합쳐져 부산과 제주도의 경기장 봉화대에 통일의 횃불로 타올라 만사람을 감동시켰다. 북의 선수들이 경기장에 나서면 남의 관중들이 응원하고 남의 선수들이 출전하면 북의 응원단이 열띤 응원을 펼쳤다. 마치도 국제체육경기가 아니라 북과 남이 모여 우리 민족끼리를 과시하는 통일행사의 마당과도 같았다.

우리 민족끼리는 북남사이에 인도주의적문제해결의 새로운 길도 열었다. 인생의 초엽에 헤여져 반세기가 넘도록 생사여부조차 모르고 지내오다가 인생의 말년에 만나 뜨겁게 포옹한 북과 남의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상봉, 그것은 우리 민족끼리통일시대야말로 민족성원 개개인의 운명도 꽃펴주고 민족의 혈맥을 더욱 굳게 이어주며 분렬의 고통도 끝장낼 격동의 시대라는것을 똑똑히 절감하게 하였다.

정녕 6.15자주통일시대에 겨레의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진것은 바로 우리 민족끼리 기어이 존엄있고 륭성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겠다는 강한 민족적자존심이였고 북과 남이 힘을 합치면 가까운 앞날에 조국통일의 세기적숙망을 반드시 이룩할수 있다는 확신이였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남조선의 반통일보수《정권》은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활로를 열어온 우리 민족끼리의 6.15자주통일시대를 《잃어버린 10년》으로 모독하며 6.15의 성과들을 모두 말살해버렸다.

《리명박근혜정권》은 지난 6.15시대에 북남삼천리에 차넘쳤던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북에 끌려다닌 결과》로 중상모독하는가 하면 《통일이라는 말도 쓰지 말아야 한다.》는 망발까지 내뱉으며 북남관계를 우리 민족끼리의 관계가 아니라 지구상 그 어디서도 찾아볼수 없는 극도의 적대관계, 대결관계로 만들어버렸다. 피를 나눈 동족과는 대결의 담벽을 높이 쌓고 침략적인 외세와는 북침불장난춤을 매일같이 추며 민족의 머리우에 열핵전쟁의 불구름만을 몰아왔다.

지나온 현실은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인 우리 민족끼리 야말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의 자주와 단합을 실현하여 나라의 통일과 평화번영을 이룩해나갈수 있게 하는 애국애족의 기치라는것을 다시금 확증하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최 광 혁

6.15공동선언발표 5돐기념 민족통일대축전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최대의 압박과 관여》의 진상을 밝힌다

최근 트럼프행정부가 다 낡아빠진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최대의 압박과 관여》로 재포장하여 꺼내들고 마치 그것이 조선반도핵문제를 풀어낼수 있는 묘안이라도 되는듯이 허세를 부려대고있다.

《최대의 압박과 관여》로 명명된 정책 아닌 이 정책을 두고 트럼프패거리들은 모든 제재와 압박수단들을 최단기간내에 최대로 동원한다는 점에서 실패로 끝난 오바마행정부의 《전략적인내》정책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떠들어대며 한편으로는 우리에 대한 류례없는 제재압박과 사상최대의 군사적위협소동에 매달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무슨 대화의 장을 펼것처럼 내외여론을 심히 어지럽히고있다.

더우기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2》형의 성과적 발사이후 《칼빈손》호핵동력항공모함타격단이 진입해있는 조선반도주변수역에 또 다른 핵동력항공모함 《로날드 레간》호타격단까지 급파하며 우리를 압박해나서는가 하면 《핵포기를 한다면 북정권교체, 북에 대한 군사적공격, 북제도붕괴 등 3가지를 하지 않겠다.》느니 뭐니 하는 빈소리를 늘어놓으며 대화와 협상의 보자기를 흔들어 사태악화를 막아보려고 어리석게 놀아대고있다.

이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에 대한 교활한 유혹인 동시에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에 대한 란폭한 유린이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도전이다.

새형의 전략탄도로케트가 련일 만리대공으로 솟구치며 주체조선의 강용한 기상을 만방에 과시하고있는 오늘에 와서 미국이 《최대의 압박》에 대하여 떠들든, 《최대의 관여》를 들고나오든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그 모든것들이 오히려 위선자들이 버릇대로 주어섬기는 횡설수설로 여겨질뿐이다.

하지만 미국의 현 행정부가 대세의 흐름을 보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 공화국을 마치 저들이 마음먹은대로 좌우지할수 있는것처럼 오만하게 놀아대는데 대해서는 수수방관할수 없다.

미국이 극단적인 날강도론리로 일관된 《최대의 압박과 관여》를 계속 들고나온다면 우리도 그에 대해 우리식의 최대의 초강경으로 대답해줄 모든 준비가 되여있다.

《최대의 압박》은 가장 악랄한 반공화국제재와 봉쇄의 극치

집권하기 바쁘게 오바마의 《전략적인내》정책을 완전실패한 정책으로 인정한 트럼프가 우리 핵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한다 어쩐다 하며 머리를 싸쥐고 분주탕을 피우던 끝에 고안해낸것이 바로 《최대의 압박과 관여》로 불리우는 미국의 새로운 대조선정책임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새롭게 이름을 달았지만 《최대의 압박과 관여》란 세기를 이어가며 집요하게 추구하여온 뿌리깊은 대조선적대시의 연장이며 극악무도한 반공화국압살정책의 최절정일뿐이라는것도 시간이 갈수록 더욱 명백해지고있다.

특히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최대의 압박》은 트럼프행정부가 추구하는 대조선정책의 초점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이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최단기간내에 미국의 력대 정권도 릉가하는 고강도압력을 우리 공화국에 가함으로써 우리가 핵문제에서 저들의 요구에 손을 들지 않으면 안되게 만든다는것이 《최대의 압박》에 내포된 음흉한 기도의 골자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우리의 핵개발을 가로막고 보유한 핵을 완전폐기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극단적인 선택도 마다하지 않을것이며 당면하게는 우리에 대한 제재와 봉쇄의 수위를 가능한 최대치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떠들어대고있다.

우리와의 대결에서 저들의 힘의 한계를 자인하고있는 미국은 추종국가들은 물론 이웃나라들까지 끌어들여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최대의 압박》을 가해보겠다고 동분서주하고있다.

이야말로 조미대결에서 종국적패배의 마지막도장을 찍을 운명에 처한 트럼프행정부가 그 수치스러운 파멸을 어떻게 하나 회피하기 위해 고안해낸 가장 무지하고 무모하며 무분별한 자살적망동이 아닐수 없다.

힘에 의한 위협, 고강도의 군사적압박은 트럼프패거리들이 떠드는 《최대의 압박》에서 주되는 내용을 이룬다.

올해에 진행한 《키 리졸브》, 《독수리 17》합동군사연습만 보아도 지난 시기 떠들어대던 《년례적훈련》이요, 《방어적훈련》이요 하는 기만적인 간판마저 떼버리고 저들의 목표가 《수뇌부제거》와 《제도전복》에 있다는것을 꺼리낌없이 공개하면서 특수작전병력을 포함한 최대규모의 침략무력을 투입하였다.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과 괴뢰군은 물론 조선반도주변에 있는 미군기지들과 미본토에 있는 병력까지 포함한 30여만명의 방대한 무력과 핵동력항공모함 《칼빈손》호타격단, 《콜럼부스》호와 《미시간》호를 비롯한 핵동력잠수함집단, 핵전략폭격기 《B—2》, 《B—1B》, 《B—52》와 스텔스전투기 《F—35B》를 비롯한 웅근 한개의 대전을 치르고도 남음이 있는 숱한 전략자산들, 《레인저》와 《델타 포스》, 《데브그루》, 《그린 베레》 등 미군특수무력까지 동원하여 무려 2달동안 치른 전쟁연습은 병력과 규모, 강도와 기간에 있어서 최대치를 또다시 갱신하였다.

미군부호전광들은 의도적으로 조선반도에서의 《4월전쟁설》과 《핵전쟁위기설》까지 내돌리며 극단적긴장을 몰아온것으로도 성차지 않아 전쟁연습종결을 선언한 후에도 침략전쟁무력을 계속 투입하고있다.

조선동해에 머무르고있는 《칼빈손》호핵동력항공모함타격단의 활동을 6월말까지로 연장하고 다음달초에는 일본 요꼬스까미해군기지에 대기시킨 《로날드 레간》호핵동력항공모함타격단까지 증강하여 우리에 대한 압박수위를 견지하겠다고 떠들고있다.

이런 군사적초긴장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포악무도하고 변덕스럽기 그지없는 트럼프패당이 리성을 잃고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폭음을 울리지 않는다고 그 누가 담보할수 있겠는가.

상상을 초월하는 군사적압박과 함께 국제외교무대에서 합법적인 주권국가인 우리 공화국을 극도로 고립시키고 우리의 자주적권리를 강탈하며 인민들의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허용하지 않겠다는것이 또한 미국이 말하는 《최대의 압박》의 주되는 내용이다.

핵을 내려놓고 저들에게 굴복하고 순종하면 살아갈수 있지만 핵을 틀어쥐고 자주적으로 살아나가면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는것이 미국의 날강도적론리이다.

잔인무도한 트럼프패거리들은 전임자들의 반공화국제재망동을 훨씬 초월하여 《북을 지지하는 그 어떤 나라나 단체, 개인도 철저히 제재하고 국제기구라도 문제시할것》이라느니, 《북의 유엔회원국자격도 박탈하겠다.》느니 하며 국제사회에서 우리 공화국의 정치외교적지위를 각방으로 떨어뜨리고 완전히 고립압살하기 위한 별의별 추악한 모의를 다 벌리고있다.

어중이떠중이들과 작당하여 어제는 《석탄수출금지》니, 오늘은 《송유관차단》이니, 《해외인력파견금지》니 하며 단돈 한푼, 단 1g의 기름이라도 이 땅에 흘러들지 못하게 모든 통로를 철저히 차단하고 우리의 마지막생명줄까지 끊어놓으려고 미친듯이 발악하고있다.

이렇듯 외교적체면도, 상대방에 대한 초보적인 례의도 다 집어던지고 우리에 대한 적의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며 《수뇌부제거》와 《제도전복》과 같은 국가테로범죄도 꺼리낌없이 감행하려는 《최대의 압박》이야말로 지금껏 미국이 추구하여온 대조선적대시의 최절정이며 우리에 대한 전면전쟁선언이다.

미욱한 짐승 사냥군의 창날을 제손으로 제가슴에 들이박는다고 하였다.

지금 트럼프행정부는 우리를 향해 내든 《최대의 압박》이 다름아닌 저들의 염통에 되돌려박힐 무서운 비수임을 너무도 모르고있다.

미국의 력대 행정부가 장장 수십년 동안 우리 공화국을 붕괴압살하기 위하여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제재와 압박책동에 끊임없이 매달려왔고 선임자인 오바마도 《전략적인내》를 표방하면서 우리에 대한 고립의 포위망, 압살의 봉쇄망을 최대로 조여보겠다고 그처럼 피눈이 되여 날뛰였지만 얻은것은 과연 무엇인가.

미국의 패권주의가 밑뿌리채 흔들리고 일국주도의 국제질서가 허물어진 반면 우리의 정치군사적위력은 급속히 강화되고 전략적지위와 영향력은 최상의 경지에 올라섰다.

트럼프행정부는 쓰디쓴 패배의 력사를 돌이켜보며 적대와 반목에 뿌리를 둔 날강도적인 제재와 압살로는 그 무엇도 얻을수 없다는것부터 똑똑히 새겨야 한다.

트럼프행정부가 우리에게 친절이라도 베푸는듯이 미화분식하고있는 《관여》정책의 본질은 다른데 있지 않다.

그것은 《최대의 압박》이라는 강압적수단만으로는 도저히 우리의 핵능력고도화를 멈추어세울수조차 없다는것을 자인하고있는 미국이 저들의 비참한 패배상을 가리우고 회유와 기만, 흥정과 설득 등 온갖 유화적수단을 동원하여 《북핵폐기》의 목표를 이루어보겠다는것이다.

겉으로는 대화와 협상, 평화의 간판을 쓰고있지만 실지로는 우리를 안으로부터 무장해제시켜보려는 극히 위험천만한 계책인 《최대의 관여》야말로 양키식오만과 량면성의 극치이다.

원래 다른 민족, 다른 나라에 대한 관여라는 말자체가 허용할수 없는 간섭이다.

이미 미국의 이중성을 진저리나도록 체험한 우리에게 있어서 《관여》라는 표현은 미국의 강도적인 침략과 략탈행위를 가리우기 위한 대명사로 안겨올수밖에 없게 되여있다.

미국은 그 무슨 《관여》를 떠들기 전에 자신들이 우리의 핵문제에 대해 《관여》할 자격과 명분이 있는지, 첨예한 조선반도정세가 미국의 《관여》따위로 해결할 성격의 문제인지부터 똑똑히 새겨보아야 할것이다.

우리의 핵문제는 수십년세월 감행되고있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과 공갈로부터 산생된 문제이며 우리가 선택한 핵보유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목숨보다 귀중한 우리의 사상과 제도, 자주적존엄을 지키기 위한 운명의 길이다.

오늘날 비상히 장성강화된 우리 식의 핵타격수단들은 다른 그 어느 누구도 아닌 핵위협과 공갈로 우리 겨레에게 온갖 불행과 고통만을 들씌운 악의 제국 미국을 겨냥하고있으며 우리의 핵이 상대하고있는 적은 바로 세계도처에서 감행되고있는 미국의 핵전쟁소동 그자체이다.

조선반도핵문제의 장본인이며 세계를 핵전쟁터로 만들고있는 특등범죄자인 미국으로서는 우리 인민과 세계앞에 자기들의 책임과 잘못을 사죄하고 근본적인 정책전환을 모색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급변하는 정세흐름을 바로 보지 못하고 도리여 《관여》니 뭐니 하는 객적은 소리나 줴쳐대고있으니 이 얼마나 가소롭고 오만무례한가.

더우기 조미관계와 핵문제해결을 위해 수십년간 진행되여온 대화와 협상과정은 미국이 떠드는 《관여》가 얼마나 위선적인것인가를 고발해주고있다.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상대의 진정어린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터무니없는 온갖 구실을 조작해내여 어렵게 마련된 합의들을 헌신짝처럼 내던져온것은 다름아닌 미국자신이다.

1994년 10월 조선반도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미기본합의문이 채택되고 그에 따라 우리가 흑연감속로와 련관시설들을 동결시키고 플루토니움생산을 중단하였지만 미국은 우리에게 제공하기로 하였던 경수로발전소건설을 지연시키고 중유납입을 중단시켰을뿐만아니라 우리 공화국을 《악의 축》으로, 핵선제공격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모처럼 이루어낸 합의를 전면파기시켰다.

2005년에 채택된 9.19공동성명 역시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이라는 성명의 기본정신에 따라 미국의 경수로건설과 우리의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로의 복귀, 국제원자력기구와의 담보협정체결이 동시행동으로 맞물려져야 하였으나 미국이 그 무슨 《위조지폐설》을 날조해내여 그해 11월 경수로건설 완전중단이라는 일방적결정을 내리는것으로 공동성명을 사문화해버렸다.

그후에도 2.13합의와 2.29합의를 비롯하여 조미사이에 수많은 합의들이 채택되였으나 그때마다 미국의 비렬한 책동으로 종이장우의 글줄로만 남아있게 되였다.

이러한 력사적과정들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근본적철회가 없이는 조미사이에 언제 가도 정상적인 대화나 협상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그 어떤 좋은 합의도 종당에는 무용지물로 될뿐이라는 쓰디쓴 교훈을 후세에 새겨주고있다.

사태가 이러할진대 트럼프것들이 떠드는 대조선《관여》정책에 대해 귀가 솔깃해할 사람이 과연 이 땅에 몇이나 있겠는가.

지금 일부에서 미국이 들고나온 《관여》론을 두고 《대화의 문을 열어놓은 조치》니, 《강경립장에서 한발 물러선 선택안》이니, 《평화적해결을 위한 의미있는 방안》이니 뭐니 하며 대조선정책에서 일말의 변화라도 있는듯이 떠들지만 이는 미국의 거만함을 더욱 부추기는것으로밖에 달리는 될수 없다.

세계의 적지 않은 나라들이 미국의 얼림수에 넘어가 얼마나 치명적인 피해를 당하였는지 우리는 지금도 똑똑히 기억하고있다.

미국본토에서 우리 땅을 향해 30분이면 날아들수 있다는 《미니트맨》대륙간탄도미싸일을 련속 발사해대고 괌도에 전개한 미공군의 전략폭격비행대와 순항미싸일을 장착한 핵잠수함들이 우리 수뇌부타격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있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정할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다.

이런판에 속빈 강정같은 《관여》타령으로 저들의 불순한 정체를 가리우고 우리를 무장해제시켜 비핵화의 길로 유도해보겠다는것은 하늘에 사다리를 놓아보겠다는것만큼이나 부질없는짓이 아닐수 없다.

우리에 대한 무지와 양키식오만의 극치인 《최대의 관여》는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물러나올 때까지도 절대로 실현될수 없는 신기루에 불과하다는것을 미행정부는 똑바로 알아야 한다.

《관여》는 양키식오만과 량면적인 교활성의 극치

《관여》는 미국의 현 행정부가 북핵문제의 새로운 해법이나 되는것처럼 생색을 내고있는 대조선정책의 또 다른 한 부분이다.

지금 그들은 《관여》란 북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것이라느니, 압박만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자신들도 원한다느니 하는 미사려구를 련일 늘어놓고있다.

트럼프가 직접 나서서 《수뇌상봉》까지 거론하는가 하면 국무성을 비롯한 정부의 고위관리들이 《정권교체도 군사적침략도 제도붕괴도 안하고 북체제를 보장할것》이라느니, 《우리를 믿어달라.》느니 하며 이른바 《관여》정책을 내외에 부각시켜보려 안깐힘을 다 쓰고있다.

등뒤에서는 우리에게 총부리를 들이대고 손들라고 강박하면서도 앞에서는 철면피하게 악수를 청하는 역겨운 놀음은 승냥이가 가면도 쓰지 않고 양의 울음소리를 내는것만큼이나 파렴치한짓이 아닐수 없다.

력대 미행정부것들이 우리앞에 내들었던 《강온전략》, 《채찍과 당근》이라는 량면적인 교활한 술책과 과연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하루빨리 용도폐기되여야 할 《최대의 압박과 관여》정책

트럼프행정부가 요란하게 광고해댄 《최대의 압박과 관여》정책은 세상에 나오기 바쁘게 쓰레기통에 처박힐 운명에 처해있다.

경제와 핵무력건설병진로선의 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 식으로 개발완성한 《화성—12》형, 《북극성—2》형탄도탄들이 련이어 우주상공에 날아올라 찬연한 성공의 불보라를 날리는데 혼비백산한 백악관은 도대체 《최대의 압박》카드를 꺼내들어야 할지, 《최대의 관여》카드를 꺼내들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덤비고있다.

그 누가 제재와 압박을 골백번 떠들어대도 가야 할 길은 끄떡없이 갈것이며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미국의 그 어떤 허세도 비참한 종말로 이어지게 될것이라는것이 우리의 일관하며 단호한 립장이다.

허세는 원래 약자의것이다.

미국이 《최대의 압박》이니, 《군사적선제공격》이니 하고 요란하게 떠들수록, 우리의 령토, 령해, 령공을 향해 거대한 무력을 새까맣게 들이밀수록 우리는 극도의 공포감에 사로잡혀 최후발악하는 미치광이들의 가련한 몰골을 통쾌하게 투시해보고있다.

(6면으로 계속)

불행과 재난의 화근-《싸드》

최근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속에서 미국의 《싸드》배치를 반대하는 투쟁이 그 어느때보다 세차게 일어나고있다.

17일 《〈싸드〉배치저지전국행동》, 진보련대, 민주로총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싸드〉배치중단을 즉각 선언하고 궁극적으로 〈싸드〉배치철회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싸드〉배치를 통보했지만 새 〈정부〉는 절박한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하면서 《〈정부〉와 〈국회〉는 〈싸드〉배치와 관련한 〈한〉미간 합의전반과 배치과정의 불법성에 대해 국정조사 등의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보다 앞서 16일에는 《〈싸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를 비롯한 투쟁단체들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국의 리익을 패권적으로 관철하려는 미국의 책동을 단호히 반대배격하며 일방적인 〈싸드〉배치를 즉각 중단할것》을 요구해나섰다. 경상북도 성주군과 김천시의 주민 500여명이 《헌법재판소》에 《〈싸드〉장비반입중단》의 내용을 담은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남조선 각계층의 투쟁은 그칠줄 모르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이 지금도 《싸드》배치를 결사반대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싸드》배치는 남조선땅을 미국의 세계제패전략실현을 위한 전초기지, 군사기지로 영원히 내맡기는 매국배족적망동이다. 또한 조선반도를 대국들의 핵전쟁마당으로 만들고 전대미문의 대참화를 불러오는 천추에 용납 못할 역적행위이기도 하다.

지금 조선반도주변나라들은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싸드》배치를 결코 수수방관하지 않을것이며 일단 유사시에는 《싸드》가 배치되여있는 미군기지를 1차적으로 타격할것이라고 공공연히 말하고있다.

결국 박근혜가 남겨놓은 가장 심각한 《적폐》의 하나인 《싸드》배치 때문에 애매한 남조선인민들만 화를 입게 되였다. 현실적으로 지금 남조선은 《싸드》배치를 놓고 주변국들과 외교적마찰을 일으키고있으며 심각한 경제적손실을 당하고있다. 그 피해도 고스란히 남조선인민들이 입고있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미국이 남조선에 끌어들이는 《싸드》는 탄도로케트를 요격할수 없는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내외의 군사전문가들은 《싸드》요격미싸일의 속도로는 엄청난 속도로 내리 꽂히는 북의 탄도로케트를 절대로 요격할수 없다고 일치하게 인정하고있다. 하여 얼마전에 진행된 공화국의 《화성—12》형 전략탄도로케트 시험발사의 성공을 두고 미국의 알라스카와 하와이는 물론 《싸드》가 배치된 괌도에서도 공포와 불안이 확대되고있다.

《싸드》야말로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며 남조선인민들에게 불행과 재난만을 들씌우는 화근덩어리라는것은 날이 갈수록 더욱 명백한것으로 되고있다.

그가 누구이든 미국의 침략적인 《싸드》배치를 허용하는것은 민심의 버림과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 죄악으로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 철 민

남녘민심은 《통일준비위원회》의 해체이다

최근 남조선에서 박근혜의 반통일체제대결모략기구인 《통일준비위원회》를 폐기시키지 않고 명칭을 바꾸어 존속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있다.

지난 22일 남조선의 한 당국자는 《긴 호흡으로 통일을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통일준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발전적으로 살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이미 조직과 인력이 있고 관련 예산도 배정되여있는것만큼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어떤 방향과 내용으로 운영할지를 검토할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국민통일위원회〉 등으로 명칭과 성격을 다소 바꾸되 이전의 기본 역할은 그대로 수행하게 하고 여기서 통일기반구축 등 중장기적추진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대외적으로 〈통일정책〉을 알리는 역할도 맡게 될것》이라고 떠들었다.

《통일준비위원회》는 박근혜가 통일을 《본격적으로 준비》한다는 미명하에 《대통령》 직속으로 내온 반통일기구이다.

북남사이의 《신뢰조성》과 《교류협력》, 《평화통일》을 요란하게 광고하면서 마치 통일에 관심이나 있는듯이 조작해낸것이 바로 박근혜의 《통일준비위원회》이다.

하지만 《통일준비위원회》는 박근혜패당의 반통일기구, 동족대결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불순한 반민족적, 반통일적 흉계들을 꾸며왔다. 박근혜의 턱밑에 숱한 밥벌레들이 모여 《북붕괴》라는 최순실의 허황한 점괘에 따라 《평화통일의 청사진》과 《통일헌법》을 마련한다고 떠들며 《흡수통일》 망상을 추구하여왔다.

지금까지 력대 남조선 보수패당치고 체제대결, 《흡수통일》 망상을 꿈꾸지 않은자가 없지만 박근혜패당처럼 당국과 정치권, 민간을 망라한 《흡수통일준비팀》까지 조작하여 체제대결에 피눈이 되여 날뛴 극악한 반통일 역적들은 없었다.

지금도 남조선 각계층은 《통일준비위원회》를 두고 《〈흡수통일〉 추구하는 〈통준위〉는 존재자체가 재앙이다.》, 《우리는 평화통일을 바란다. 통일방해위원회는 박근혜와 함께 가라.》, 《엉터리기구 해산하라.》고 하면서 《통일준비위원회》를 당장 해체할것을 강력히 주장하고있다.

박근혜패당이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이상 역도의 추악한 배설물인 《통일준비위원회》도 마땅히 없어져야 한다는것이 남조선민심의 한결같은 요구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극악한 동족대결의 모략기구를 간판을 바꾸어달고 그대로 유지해보려고 하는것은 박근혜 역적패당의 대결정책의 연장으로서 남조선민심과 내외여론, 온 겨레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며 모독이 아닐수 없다.

그가 누구든지 죄많은 박근혜의 어지러운 과거를 또다시 재현하려 한다면 역도와 같은 비참한 운명을 면치 못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 영 진

다시금 드러난 《싸드》의 정체

최근 공화국에서 진행된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2》형시험발사의 성공에 기절초풍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속에서 비명소리가 그칠줄 모르고 울려나오고있다.

가관은 그속에서도 제딴에 속은 살아서 《탐지》니 뭐니 하며 주둥이를 나풀거리는자가 있으니 그가 바로 남조선국방부장관 한민구이다.

한민구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있은 《긴급현안보고》라는데서 경상북도 성주에 배치한 《싸드》레이다가 북의 탄도로케트를 《탐지》했다고 횡설수설하였다.

웃기는것은 제딴에는 《싸드》가 《유용》하다는것을 말하려 한다는것이 도리여 뭇사람들의 비난과 조소를 받으며 긁어부스럼을 만든것이다.

지금껏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은 조선반도주변나라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싸드》의 탐지거리가 600km라고 떠들어댔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싸드》는 《화성-12》형 전략탄도로케트를 발견조차 할수 없다는것이 군사전문가들의 일치한 결론이다.

결국 한민구의 이 발언은 《싸드》레이다의 탐지체계와 방식이 미국과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이 주장하는 600km가 아니라 4 000km이상이며 그 기본목표가 조선반도주변나라들이라는것을 스스로 인정한것으로 된다.

이를 놓고 남조선의 정치계와 언론계 등 각계층속에서 《싸드》레이다의 탐지거리가 주변국들을 포함하고있다는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목소리가 비발치듯 울려나오자 바빠맞은 한민구는 레이다의 탐지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른다.》, 《미국측에 이를 확인했을뿐이다.》고 발뺌하는 추태까지 부리였다.

이 말은 또 이 말대로 《싸드》운영의 주체는 다름아닌 미국이며 지난 시기 남조선군부것들이 《싸드》를 미국과 《공동운영》한다고 떠들어댄것이 순전히 《싸드》배치를 반대하는 내외여론을 기만하기 위해서였다는것을 드러내보인것으로 되였다.

자루속의 송곳은 감출수 없는 법이다. 한민구가 뱉은 말들을 종합해보면 《싸드》레이다가 조선반도를 넘어 주변나라까지 항시적으로 감시하고있으며 《싸드》가 미국의 대아시아지배전략의 주요수단으로서 남조선보수패당은 땅이나 섬겨바치고 《싸드》운영에 대해 아무것도 간섭할수 없는 하수인에 불과하다는것이다.

《싸드》 같은것으로는 결코 공화국의 탄도로케트를 막을수 없다.

지금 군사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락하속도가 일정수준을 넘어서는 북의 탄도미싸일을 속도에 한계가 있는 〈싸드〉 요격미싸일로는 절대로 맞힐수 없다.》고 말하고있다.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암적존재인 동시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애물단지에 불과한 미국의 《싸드》를 신주모시듯하는 한민구와 같은 군부호전광들의 신세가 가련하다 해야 할것이다.

김 진 혁

《꼴통보수》의 가긍한 몸부림

최근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남조선의 보수패거리들이 반공화국적대감을 더욱 로골적으로 드러내면서 현 《정권》이 북남관계개선에 나서지 못하게 하려고 악을 써대고있어 내외의 비난과 조소를 받고있다.

《자유한국당》 것들은 남조선의 현 《정권》을 《친북좌파정권》으로 몰아대면서 《〈정부〉는 북의 본질을 직시하여야 한다.》, 《대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수 있다는 미몽에서 깨여나야 한다.》, 《북이 핵과 미싸일을 포기하지 않는 한 대화는 있을수 없으며 경제협력은 더더욱 있을수 없다.》, 《일관된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가시돋힌 악담들을 련일 쥐쳐대고있다.

그런가하면 통일부가 《남북민간교류를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는 립장을 밝힌데 대해서도 《북의 무력도발에 굴복한것으로 비춰질수 있다.》느니, 《매우 부적절한 처사》니 뭐니 하며 앙탈질을 해대고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비롯한 극우보수언론들도 《남북관계를 대화로 푼다는것은 환상이다.》, 《북은 〈정부〉를 〈딸라주머니〉 정도로나 여기고있다.》, 《북의 핵무장강화에 리용당할수 있다.》, 《단호한 메쎄지를 보내야 한다.》고 떠들어대면서 남조선 내부에 반공화국적대의식과 북남관계개선에 대한 회의감을 고취하려고 교활하게 놀아대고있다.

력사의 기슭으로 밀려난 거품같은 보수패당이 감히 민족의 중대사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하며 북남관계개선에 제동을 걸어보려 하는것이야말로 가소롭기 그지없는 망동이다.

남조선보수패당의 이러한 발악적책동은 이번 《대선》에서의 패배로 극도의 위기에 몰린데다가 이제 북남관계까지 열리게 되면 저들이 6.15시대때처럼 립지를 완전히 잃고 지리멸렬당할수밖에 없다는 극도의 불안감에서 오는 몸부림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날 북남관계개선은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안정, 번영의 길을 여느냐, 동족대결과 핵전쟁의 참화를 불러오느냐를 판가름하는 사활적인 문제로서 당국이나 정파의 요구이기 전에 남조선초불민심이고 민족의 근본지향이다.

특히 얼마전 남조선에서 진행된 《대선》은 극악한 동족대결정책으로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상태에 몰아넣은 보수패당에 대한 남조선민심의 준엄한 심판이였다.

누구든 민족의 근본리익을 외면하고 동족대결에 매달린다면 민심의 준엄한 철추를 면치 못하게 된다는것이 박근혜탄핵과 보수《정권》파멸이 남긴 력사의 교훈이다.

비극은 보수패당이 대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푼수없이 헤덤벼치고있는것이다.

동방의 핵강국, 로케트맹주국으로 솟구쳐오른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군사적위력에 기겁하여 미국상전마저도 쩔쩔매고있는것이 눈앞의 현실이다. 북남관계개선은 막을수 없는 대세의 흐름이며 현실적으로 어리석은 미몽에서 깨여나야 할것은 다름아닌 남조선의 보수패당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남조선의 보수패거리들은 동족대결에 환장하여 10년간이나 북남관계와 통일위업에 엄중한 해악을 끼친 죄악만으로도 이 땅에 살아 숨쉴 자격을 상실한 민족반역의 무리이다.

《족제비도 낯짝이 있다는데 남북관계를 최악의 파국에 몰아넣은 보수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간섭말라.》, 《보수라고 하면 이제는 막 진저리가 난다.》, 《꽉 꺼져버려.》라고 저주를 퍼붓는 남조선 각계층의 목소리를 보수패당은 똑바로 새겨들어야 한다.

민족의 지향과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여 북남관계개선을 계속 가로막아나선다면 제명을 다 산 력사의 쓰레기무리로서의 저들의 비참한 종말만을 더욱 앞당기게 될뿐이라는것을 보수역적세력은 똑똑히 명심해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김 명 성

(5면에서 계속)

핵없는 나라, 힘이 약한 민족만을 골라 군사적으로 롱락하고 정치적으로 제압하며 경제적으로 봉쇄하여 길들이던 악마의 제국은 비로소 종말을 맞고있으며 시대는 자주와 정의, 선군과 사회주의를 지향하여 새롭게 전진하고있다.

단언컨대 미국이 우리에 의한 《심각한 위협》을 련일 떠들며 그 무슨 비상대책을 세우느라 급해맞아 돌아치는 오늘의 현실이야말로 력사의 새로운 기적이 아닐수 없다.

인디안원주민들의 해골우에 성조기를 띄우고 무자비한 침략과 전쟁의 피바다우에 유일초대국이라는 탑을 쌓은 미국이 타민족이나 타국을 침략하고 위협하는것은 지극히 정상적인것으로 간주되였지만 그 반대의 용용한 흐름은 상상도 할수 없었던 어제날의 국제사회였다.

오늘에 와서는 모든것이 달라지고있다.

다름아닌 미국이 우리에 의한 《위협》을 떠들고 《우리의 보복공격》으로 인한 자국의 안전을 두려워하게 되였다.

우리를 그토록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도 다른 나라들을 향해 그러했던것처럼 함부로 포탄 한발 날릴수 없게 되였으며 국제사회의 어중이떠중이들을 다 끌어모아 우리에 대한 제재압박을 가하는것외에 다른 방도는 찾기 어렵게 된것이 바로 미국의 가련한 처지이다.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이러한 엄청난 현실의 변화를 인정해야 한다는데 미국의 심각한 고민이 있다.

하지만 버릴것은 버려야 하고 인정할것은 인정해야 한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공화국은 명실상부한 핵강국이며 비상히 빠른 속도로 강화발전된 핵억제력으로 핵공갈을 일삼는자들을 다스릴수 있게 준비되였다.

세상에서 가장 완성된 무기체계가 결코 미국의 영원한 독점물이 될수 없으며 미국이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면 우리도 미국에 더 큰 위협을 들씌우고 미국이 핵선제공격을 감행하면 우리 역시 미국에 섬멸적인 핵보복공격을 들이댈 권리가 있다.

이것은 명실공히 우리의 자주이고 자위이며 존엄이다.

피땀바쳐 이룩해놓은 실질적인 최첨단핵공격능력이 수십년간에 걸친 조미대결전에 종지부를 찍고 이 지구상에서 《힘만능론》, 《제재만능론》을 완전히 쓸어버리며 정의롭고 공정한 국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였음을 우리는 구태여 숨기지 않는다.

그토록 처절하고 참혹했던 조미대결전의 력사는 이제 마지막페지를 넘기고있다.

미국은 자신들앞에 마주선 상대를 똑바로 보아야 하며 언제 가도 실현될수 없고 상대의 더 큰 반발과 도전을 부를 《최대의 압박과 관여》따위의 어리석은 정책궤변을 더이상 제창하지 말아야 한다.

《최대의 압박》이나 《최대의 관여》가 아니라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철회에 기초한 인정과 존중, 평등과 호혜만이 조미사이에 정상적인 관계수립을 위한 옳바른 정책기조로 될수 있다.

우리의 거듭되는 충고에도 불구하고 트럼프행정부가 극악무도한 반공화국압박과 제재봉쇄책동에 매달린다면 우리는 적들에게 전률과 공포, 죽음을 들씌울 우리 식의 핵공격수단들을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쏴올리는것으로 대답할것이다.

조미대결의 최후결사전을 위해 피로써 다지고 벼려온 대미핵능력을 세상이 보는 앞에서 속시원히 증명해줄것이다.

세계도처에서 수백차에 달하는 침략전쟁을 일으켰지만 핵강국과는 단 한차례도 맞붙어보지 못한 미국이 진짜위협이란 과연 어떤것인지, 지금껏 저들때문에 인류가 당한 고통과 불행, 재난이 얼마나 뼈아픈것인지 직접 체험하게 해줄수도 있다.

미국은 오판하지 말아야 하며 조성된 심각한 사태를 똑바로 가려보고 옳은 선택을 하여야 한다.

기회는 많지 않으며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 법이다.

더 큰 위기가 닥쳐들기 전에, 다시는 만회할수 없는 더 큰 패배와 파멸을 당하기 전에 미국의 트럼프행정부는 현명한 결단을 내리는것이 좋을것이다.

론 평 원

(《로동신문》에서 전재)

《북핵공조》는 동족대결이다

남조선에서 초불민심에 의해 《정권》교체가 진행되고 보수세력들이 집권기간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분야의 이르는 곳마다에 쌓아놓은 각종 오물(적폐)들을 청산할데 대한 요구가 날이 갈수록 높아가고있다.

그중의 하나가 북남관계 분야에서의 《적폐청산》 요구이다. 말하자면 남조선민심은 《리명박근혜정권》에 의해 결딴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협력으로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을 마련할것을 바라고있다.

장장 70여년에 걸쳐 외세에 의해 강요된 민족분렬의 고통과 전쟁의 위험을 항시적으로 받고있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이것은 너무도 응당한것이다.

하기에 우리 민족은 나라가 둘로 갈라진 때로부터 오늘까지 외세의 간섭없이 자주적으로 민족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힘찬 투쟁을 벌려왔다.

그러나 그것은 외세의 끊임없는 간섭과 남조선의 반통일세력들의 극악한 도전으로 결실을 보지 못하고있다.

특히 외세를 등에 업고 동족대결과 북침전쟁소동에 미쳐날뛰는 남조선보수세력들의 발악적책동으로 말미암아 북남관계는 더이상 수습할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고 조선반도정세는 전쟁의 문어구에까지 다달았다.

현실은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민족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최근 남조선에서의 박근혜에 대한 탄핵과 이번 《대통령》선거결과는 상전의 바지가랭이를 부여잡고 친미굴종으로 명줄을 이어가던 사대매국무리들에 대한 력사의 심판으로서 민심의 자주적 요구가 얼마나 강렬한가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그런데 이러한 민심의 요구와는 배치되게 남조선에서는 아직도 《〈한〉미동맹은 외교안보정책의 근간》이라느니, 《미국과의 관계가 우선》이라느니 하는 다 꿰진 사대굴종의 목소리가 계속 울려나오고 있다. 남조선당국이 미국과 주변나라들은 물론 유럽지역나라들을 대상으로 벌려놓은 《특사외교》놀음에서도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협력》이니 하는 외세의존의 구걸의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이것이야말로 반역무리들이 쓸어놓은 《적폐》를 청산할데 대한 민심의 요구에 배치되는 행위가 아닐수 없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떠드는 그 무슨 《북핵문제》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의 산물이다.

원인없는 결과란 없듯이 미국이 북침핵전쟁연습소동을 매일과 같이 벌리면서 공화국을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았다면 《북핵문제》란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것이다. 날로 무모해지고 로골화되는 미국의 가중스러운 핵위협소동이 공화국을 핵억제력강화에로 떠밀었고 오늘은 그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동방의 핵강국, 로케트강국의 지위에 올려놓은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는것은 세인이 다 아는 사실이다. 공화국의 핵억제력은 이미 루차 천명한것처럼 그 누구를 해치려는것이 아니라 전체 조선민족의 안전과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것이다.

북과 남의 전체 조선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미국의 핵무기에 대해서는 꿀먹은 벙어리마냥 입을 다물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수호하는 공화국의 핵억제력을 놓고 이러쿵저러쿵 하는것이야말로 박근혜《정권》이 한 친미사대굴종행위와 무엇이 다른가.

남조선인민들이 요구하는 북남관계개선의 목소리에는 귀를 막고 《북핵공조》를 떠들며 외세추종과 동족대결만을 일삼으면서 력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던 박근혜역적무리들은 초불민심에 의하여 탄핵되여 죄수복을 걸치고 감방에 처박히는 신세가 되였다.

박근혜역도의 운명은 외세굴종과 친미사대에 미쳐 민족의 지향에 역행하는자들은 비참한 파멸을 면치 못한다는것을 다시금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북핵공조》는 동족대결외에 다른것이 아니다.

남조선당국이 외세추종과 동족대결을 일삼다 력사의 오물통에 처박힌 박근혜의 반민족적행위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북남관계문제에서 그것을 그대로 답습한다면 초불민심에 역행하는것으로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응철

마지막까지 동족대결타령

박근혜역도의 특등졸개가 되여 동족대결에 광분해온 남조선통일부 장관 홍용표가 당장 자리에서 쫓겨나게 된 마지막순간까지 반통일대결본색을 드러냈다.

이자는 지난 22일 그 무슨 《간담회》라는데서 《통일부 장관으로서 하고자 했던것은 평화통일이였다.》느니, 《남북평화와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했으나 북핵위협이 거세지면서 북위협에 대응하고 비핵화노력을 기울일수밖에 없었다.》느니 하고 구역질나는 나발을 불어댔다. 이보다 앞서 10일에도 그는 통일부의 어중이떠중이들에게 《북의 비핵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 해달라.》는 역겨운 수작질을 늘어놓았다.

원래 홍용표로 말하면 북남관계에 대한 초보적인 상식이나 일가견은커녕 자기의 똑똑한 주견도, 주대도 없는 인간추물, 무지무능한 백치이다.

그가 처음 통일부 장관의 벙거지를 썼을 때 《매파(강경파)》인가, 《비둘기파(유화파)》인가 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는 매파도, 비둘기파도 아닌 올빼미파》라는 동에 닿지 않는 말을 내뱉아 만사람을 웃겼던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자가 통일부 장관의 감투를 쓰고 지금껏 한짓이란 청와대악녀의 퀴퀴한 치마자락에 매달려 더러운 목숨을 부지하면서 역도년의 극악무도한 동족대결정책을 앞장에서 광고해대고 북남관계를 무참히 도륙낸것뿐이다.

이자는 《북핵포기》, 《북인권》, 《북체제변화》를 떠들어대는 집권자의 대결망발을 되받아 외우며 《북핵은 절대 인정할수 없다.》, 《비핵화의지를 먼저 보여야 한다.》, 《제재와 압박수단이 더 필요하다.》고 교아대며 동족대결을 앞장에서 선동해왔다. 온갖 인간쓰레기들을 긁어모아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에 악질적으로 광분해온것도 다름아닌 홍용표이다.

박근혜와 작당하여 6.15시대의 소중한 산아인 개성공업지구를 전면폐쇄하고 북남관계를 송두리채 결딴내고도 《개성공단 전면중단조치가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의 큰 성과》라고 자랑삼아 고아댄것이 동족대결광신자인 홍용표이다.

저지른 만고죄악에 대해 백날, 천날 석고대죄해도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하겠는데 아직도 대세를 분간하지 못하고 《북비핵화》니, 《평화통일》이니 하고 구린내나는 주둥이를 놀려대는것을 보면 가소롭기 짝이 없다.

홍용표가 쥐쳐댄 수작질은 죄악에 죄악을 덧쌓아온 대결분자로서의 흉악한 정체를 가리우고 북남관계악화의 책임을 북에 떠넘겨보려는 요술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그것은 《북핵위협》을 구실로 총파산당한 동족대결정책을 합리화하고 민주개혁세력이 북남관계개선에 나서지 못하게 못을 박으려는 더러운 속내를 드러낸것이다.

홍용표는 지금 박근혜와 그 공범자들이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어떤 가련한 신세에 굴러떨어지고있는가를 보고있을것이다.

홍용표는 민심의 서슬푸른 심판의 칼날이 자기 목에 떨어질 날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는것을 똑바로 알고 고스란히 벌을 청하는것이 좋을것이다.

박근혜와 홍용표를 비롯한 천하역적들의 말로는 그가 누구든 외세에 추종하여 동족대결을 추구한다면 비참한 파멸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것을 력사의 교훈으로 새겨주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류현철

끝을 모르는 《국정》파괴행위

최근 박근혜패거리들이 저들의 추악한 범죄를 영원히 흑막속에 파묻으려고 책동한 사실이 드러나 남조선 각계가 법석끓고있다.

천하가 경악할 만고죄악을 저지르고 탄핵당하여 감옥귀신이 된 박근혜년이 졸개들을 부추겨 다음기 《정권》에 넘겨야 할 청와대문서들까지 모조리 없애치우는 비렬한 범죄행위를 감행한것이다.

력대로 남조선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전 집권시기의 업무자료들을 《공개기록물》, 《비공개기록물》(3~5년동안 공개금지), 《대통령지정기록물》(15~30년동안 공개금지)로 분류하여 《기록원》에 이관하고 그가운데서 《국정》현안과 관련된 자료들만은 《후임〈정권〉참고용》으로 청와대에 남겨놓는것이 관례로 되였다.

그러나 황교안을 비롯한 박근혜패당은 청와대 운영질서와 관련된 10페지짜리 《현황보고서》라는것만 달랑 떨구어놓고 《싸드》배치 등 남조선정국을 혼란에 몰아넣은 각종 관련자료들을 전부 삭제하였으며 청와대내부의 콤퓨터들과 봉사기에 남게 되는 자료흔적까지 말끔히 지워버렸다.

이것은 박근혜패당이 저들이 저지른 특대형범죄의 내막을 흑막속에 영원히 묻어두어 력사와 민심의 심판에서 벗어나보려는 고의적인 작간으로서 천하의 악녀를 단호히 심판한 남조선초불민심을 우롱하는 또 하나의 용납할수 없는 특대죄악이다.

박근혜로 말하면 집권 4년간 력대 통치자들을 릉가하는 극악한 사대매국과 동족대결망동으로 죄악의 《신기록》을 세운 희세의 대결광이며 남조선사회에 세계정치사상 류례없는 부정부패의 오물을 들씌워 세기적수치를 가져다준 《유신》의 썩은 페물이다.

세계도처에서 배척받는 《싸드》라는 페물을 끌어들여 남조선을 미국의 침략전쟁터로 완전히 내맡기고 몇푼의 돈으로 백년숙적 일본의 반인륜범죄를 무마시키려 한 특등친미친일사대매국노, 서푼짜리 국제창녀가 다름아닌 박근혜이다.

최순실과 같은 촌무당에게 놀아나 《국정》을 롱락하고 권력을 마구 휘두르며 치부의 피라미드를 쌓아올린 전대미문의 부정부패행위와 침몰되여가는 《세월》호에서 수백명의 어린 생명들이 애타게 구원을 청하던 그 순간에도 청와대안방에 들어박혀 다 늙어빠진 상판의 주름을 펴느라 7시간이나 허송세월한 반인륜적행위만으로도 역도년은 마땅히 극형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감옥귀신이 되고서도 죄의식은커녕 자기의 특대형범죄의 내막을 감추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으니 세상에 박근혜패당처럼 지독한 악마들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지금도 박근혜는 공식재판장에서까지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며 뻔뻔스럽게 놀아대고있다.

그야말로 《유신》독재자 박정희의 포악한 기질을 그대로 물려받은 박근혜와 같은 독사만이 할수 있는 후안무치한 행위가 아닐수 없다. 남조선 각계층이 《기록물관리법 전면위배라는 중범죄를 또 저질렀다.》, 《국정롱단을 넘어 국정파괴행위이다.》, 《저런 추물 같은 년을 〈대통령〉으로 들여앉혔던 국민적수치감을 무엇으로 씻겠는가.》고 격분에 치를 떨면서 사건의 진상을 끌까지 파헤쳐 박근혜와 황교안 등 그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할것을 강력히 요구해나서고있는것은 너무도 응당하다.

역적패당의 청와대문서 전면폐기범죄는 남조선에서 《적폐》청산의 주되는 창끌은 마땅히 박근혜와 그 잔당들에게로 돌려져야 한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민심에 정의가 있고 민심에 역행하는자들이 갈 곳은 력사의 무덤밖에 없다.

정문혁

망한 집안의 개싸움

최근 남조선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정당들이 당내파벌싸움과 당들간의 대립으로 하여 최악의 궁지에 빠져들고있다.

제19대 《대선》전야에 친박계와 비박계로 나뉘여 추악한 싸움판을 벌렸던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이 요즘은 홍준표파와 당상층부 등 4개 파로 갈라져 저마다 선거패배책임을 상대방에게 넘기면서 밤낮으로 으르렁대고있다.

비박계는 이번 《대선》에서의 패배를 《력대 최대의 보수참패》로 규정하고 《친박이 죽음의 구덩이를 파놓았다.》, 《몽둥이로 대갈통을 박살내야 한다.》는 폭언까지 내뱉으며 친박계를 강하게 몰아대고있다.

이에 대해 친박계는 박근혜의 탄핵에 동조해나서고 탈당해 당분렬을 초래한 비박계의 《죄행》을 따지며 《비박근혜파들은 당에 도움은커녕 부담만 주었다.》고 반격해나서는가 하면 《책임한 계를 명백히 가르자.》고 하면서 비박계와 당상층부, 홍준표파에 이번 선거패배의 책임이 있다고 몰아대고있다.

당상층부 역시 《지금까지 후보로 나왔다가 떨어진 사람이 책임을 졌다.》며 모든 책임을 홍준표에게 떠넘기고 홍준표패들은 이에 반박하는 등 선거패배책임을 둘러싼 계파싸움은 갈수록 치렬해지고있다.

이를 두고 남조선언론들은 《자유한국당》내에서 《대선패배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있다고 평하고있다.

원래 이번에 진행된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집권기간 갖은 못된짓을 다한것으로 하여 민심의 사형선고를 받은 《자유한국당》이 패하리라는것은 불보듯 뻔한것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내에서 《대통령》선거에서의 패배문제를 꺼내들고 서로 책임을 따지며 비난전을 벌리는데는 그것이 당권쟁탈전과 밀접히 련관되여있는것과 관련된다. 이번 선거패배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넘겨씌워야 자기 파들이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지도부에 들어가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하기에 지금 비박계는 선거패배의 주역인 당지도부와 홍준표는 당권도전에 나설 자격이 없다고 악을 쓰는가 하면 홍준표패들은 《대선을 계기로 무너져가던 〈자유한국당〉을 홍준표가 다시 일떠세웠다.》고 호통치며 《전당대회출마는 당연하다.》고 도전장을 내밀고있다.

이에 당상층부는 《패자가 당권에 도전하는것은 렴치없는짓이다.》며 반격해나섰다. 《대통령》후보로 선출받고도 선거에서 패했으니 그 책임을 지고 뒤선으로 물러나라는것이다.

친박계는 또 그들대로 당대표권한대행 정우택의 사퇴와 《홍준표정계은퇴》를 내들고 압박하는 한편 당권장악실패에 대비하여 당대표에게 권한이 집중된 현재의 《단일지도체제》를 《집단지도체제》(당권을 대표와 최고위원들에게 분산시키는 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고아대고있다. 여론들과 분석가들은 《자유한국당》내부에서 계파간 싸움질이 전당대회가 다가올수록 더욱 치렬해질것이며 그것이 해소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망조가 든 역적당을 비난하고있다.

선거패배의 후유증을 앓기는 다른 보수정당들도 마찬가지이다.

《대선》을 며칠 앞두고 일어난 무더기탈당사태로 존재를 겨우 유지하고있는 《바른정당》에서는 끌까지 독자적인 길을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파와 《국민의 당》과의 련대나 통합을 추구하는 파가 팽팽히 대립하고있으며 극우보수떨거지들의 집합체인 《새누리당》내에서는 조원진패들이 《대선》막판에 홍준표를 지지한 당지도부것들을 사기,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추악한 개싸움질이 벌어지고있다.

그런가하면 《자유한국당》것들은 《바른정당》을 《류행 좌파》, 《최순실폭탄을 피하기 위한 도피용정당》이라고 비난하고있으며 《바른정당》패거리들은 《자유한국당》을 《도로친박당》으로 조롱하는 한편 저들을 배신하고 《자유한국당》에 다시 가붙은 탈당파들을 《음식물 찌꺼기를 찾아 헤매는 들쥐》, 《썩은 고기를 쫓는 히에나》라고 험담하는 등 보수정당들사이의 갈등과 대립도 갈수록 격화되고있다.

이에 대해 남조선의 여론들과 민심은 《보수의 내부분렬이 걷잡을수 없는 지경으로 치닫고있다.》, 《보수정치가 고사상태에 처했다.》고 야유조소하고있다.

당리당략과 세력권쟁탈에 미쳐 개싸움질을 벌리는 보수정당패거리들의 망동은 제명을 다 산 력사의 퇴물들의 추태로서 그들이야말로 민생은 안중에 없이 권력욕에 환장한 추악한 정치시정배, 인간쓰레기들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주광일

릉라곱등어관에 새로 온 《배우》

릉라곱등어관에 새 《배우》가 나타났다. 물개이다.

원래 릉라곱등어관은 그 명칭이 말해주듯 곱등어들이 재주를 부리는 곳이다. 그런데 얼마전부터는 갖가지 재주를 부리는 곱등어들의 《공연》에 뒤이어 물개들이 출연하여 사람들의 인기를 더욱 끌고있다.

그때마다 관중들은 《〈희극배우〉가 출연한다.》며 박수를 보내고 있다.

주둥이가 특별히 인상깊게 생기고 우람하면서도 단단한 몸통을 가진 물개가 뒤발로 바닥을 쓸며 앉은뱅이걸음새로 무대에 나오는 모양을 보며 관람석에서는 련이어 폭소가 터져오른다.

물개는 우습강스럽게 생긴 앞발로 관중들을 환영하는 동작, 뒤발을 중심으로 몸통을 솟구쳐 관중들과 교감하며 주둥이를 내미는 동작, 앞발로 《박수》를 치거나 육중한 몸통을 절반 굽혀 인사하는것과 같은 기교동작들을 련이어 펼쳐보이고있다.

관중들의 박수갈채에 《으쓱해진》 물개는 주둥이와 뒤발에 공을 올려놓고 몸중심을 잡기도 하고 주둥이로 공을 몰고 롱구선수처럼 그물에 넣기도 하는가 하면 조교사가 던져주는 륜을 목에 거는 등 재치있는 동작들을 련속 수행하여 관람자들을 기쁘게 해주고 있다.

지금 릉라곱등어관으로는 달아오르는 더위를 식히며 새로 온 《희극배우》의 공연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있다.

본사기자

《근역강산맹호기상도》

《근역강산맹호기상도》는 조선을 강점한 일제가 극악한 식민지통치를 실시하여 우리 인민을 도탄속에 몰아넣고 조선사람의 성과 이름, 말과 글까지 없애버리려고 미친듯이 날뛰던 1920년대에 일제에게 항거하여 우리 나라의 지형학적특징을 용맹한 호랑이로 상징화하여 창작된 작품이다.

간악무도한 일제는 조선지도모양을 토끼에 비유하면서 우리 민족을 토끼와 같이 연약하고 온순해서 잡아먹을수 있는 대상으로 해석하여 우리 인민들의 반일의식을 꺾으려고 악랄하게 꾀하였다.

그러나 슬기롭고 용감한 우리 겨레는 조선지도모양을 용맹한 호랑이로 형상하였다.

《근역강산맹호기상도》에서는 호랑이의 등뼈를 백두대산줄기로, 몸통에 뻗친 줄무늬를 백두대산줄기로부터 뻗어나간 가지산줄기들로 묘사하였다.

그림지도에서 조선은 조종의 산 백두산에서부터 시작하여 지리산줄기의 구재봉까지의 산줄기들이 하나의 지맥으로 이어진 하나의 강토, 그 어떤 맹수들이 덤벼들어도 싸워이길수 있는 용맹스러운 호랑이로 훌륭히 형상하였다.

조선지도의 생김새를 호랑이로 상징하였다는 사실적증거는 우리 나라 지도에서 지형이름표기를 보아도 잘 알수 있다.

경상북도 포항시의 영일반도는 조선동해쪽으로 삐죽하게 나와있어 신통하게도 호랑이의 꼬리처럼 생겼다고 하여 반도의 끝을 《호미곶》이라고 부르고 있다.

본사기자

동방례의지국

우리 나라는 오래전부터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속에서 동방례의지국으로 널리 불리워져왔다.

정의감이 강하고 진리와 도덕을 귀중히 여긴 조선인민은 재물과 권력에 굴종하는것을 가장 커다란 수치로 여기였고 이웃간에 서로 믿고 의지하며 화목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도덕풍습을 발전시켰다.

우리 선조들은 례절과 의리가 매우 밝고 의협심이 강했으며 마음씨가 부드럽고 아름다웠다. 특히 늙은이들을 효성스럽게 공대하였고 손님접대가 아주 후하여 한번 다녀간 외국사람들은 오래도록 좋은 인상을 간직하군 하였다.

고려를 다녀간 한 외국사신은 《고려는 여러 나라가운데서 문물과 례의의 나라이다.》라고 감탄하였으며 19세기말에 조선을 려행한 로씨야의 지리학자는 《조선사람들은 려행자들이 머무는 첫날부터 마지막날까지 친절하게 접대해줌으로써 려행자들을 반하게 한다. 세상에 이렇게도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특성을 가진 인민을 발견하기는 힘들것이다.》라는 말을 남기였다.

이렇듯 우리 민족은 수천년동안 이 땅에서 고유한 민족전통을 창조하면서 찬란한 문화를 꽃피워왔다.

본사기자

비타민결핍증상이 자체판단법

—비타민A가 결핍되면 피부가 메마르고 눈물이 잘 나오며 눈이 점차 어렴풋하게 보이는 증상이 나타난다.

—비타민B_1가 결핍되면 소화불량이 쉽게 오고 기색이 좋지 않으며 심할 때는 손발이 마비되고 다발성신경염과 무좀이 생긴다.

—비타민B_2이 결핍되면 입안에서 역한 냄새가 나고 잠이 잘 오지 않으며 머리가 아프고 피로감을 느끼게 되며 머리비듬이 많아지게 된다.

—비타민B_6이 결핍되면 근육경련이 일어나고 외상이 잘 아물지 않으며 임신부인 경우 메스껍고 토하는 증상이 심하게 나타난다.

—비타민B_{12}이 결핍되면 피부가 창백해지고 머리칼이 빠지고 누렇게 되며 머리가 흐리터분하고 식욕이 떨어지며 토하고 설사한다.

—비타민C가 결핍되면 이몸이 부어오르면서 쉽게 피가 나고 상처가 잘 아물지 않으며 주위온도의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워하고 감기에 잘 걸린다.

—비타민D가 결핍되면 어린이는 연골증에 걸리기 쉽고 어른은 골질연화병에 걸리기 쉽다.

—비타민E가 결핍되면 사지가 나른해지고 땀이 잘 나며 피부가 메마르고 머리칼끝이 잘 갈라지며 녀성들은 달거리아픔이 심하다.

본사기자

체육과 관련한 몇가지 유모아

롱구: 공을 빼앗았으면 빼앗았지 빼앗은 공을 왜 도로 상대편의 그물에 넣는거야? 죄다 멍청이들이야!

권투: 싸움을 시켰으면 왜 발길질을 하지 못하게 하는거야? 무슨 규칙이 이래?

당구: 공을 구멍에 넣는데 왜 막대기를 쓰는거야? 손은 두었다 무엇하지?

탁구: 닭알만 한 공을 가지고 서로 밀면서 사양할것까지 있나?

보링: 기둥 열개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애를 쓸것까지야… 지루하지도 않나보지?

사화

다시 찾아온 경천사 흰대리석탑 (7)

글 전철호, 그림 박봉혁

장지연은 리상재의 이야기에 눈시울이 젖어올라 큰숨을 내쉬며 말하였다.

《아! 사람이 견문이 넓어서만 의롭게 산다 하고 학식이 깊고 재물이 많아서만 큰일을 한다 하겠소이까.

조상들의 업적을 잊지 않고 그것을 오래오래 지켜가는 사람만이 진짜 제겨레를 위한 의로운 일을 이룰수가 있는것이로소이다.》

리상재의 눈에도 눈물이 어리였다.…

《선생님!》

리상재는 자기를 부르는 간절한 목소리에 놀라 앞을 바라보았다.

억기의 맑은 두눈이 어떤 절절한 소원과 기대를 담고 자기를 쳐다보고있었다.

그제서야 리상재는 오늘 일을 알고싶어 물은 억기의 물음에 대답은 않고 한동안 제 생각에 옴해있었음을 깨달을수 있었다.

리상재는 억기의 손을 끌어당겨 두손으로 감싸쥐면서 신중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억기야, 우린 며칠 있다가 모임을 하나 열자고 한다. 그런즉 너는 거기에 나가 네가 보고 당한 왜놈들의 만행에 대해서 하나도 빼놓지 말구 모두 말해야 한다.》

그 말을 듣자 억기의 얼굴이 대번에 하얗게 질리였다.

《제… 제가요?》

《겁낼게 없다. 그것이 바로 왜놈들에게 강탈당한 석탑을 찾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용기가 나고 배짱도 생길게다.》

《선생님!》

며칠후 한양의 어느 한 학교강당에서는 경천사석탑도난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모임이 열리였다.

이전 《독립협회》회원들과 망국전의 관리들, 장지연을 비롯한 강제폐간된 여러 신문사들의 이전 기자들 그리고 시내 청년학생대표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리상재의 사회로 시작된 모임에서는 억기가 먼저 경천사석탑도난사건에 깃든 만단사연을 이야기하였다. 지금껏 두세명의 사람들앞에서도 말 한마디 제대로 해본적이 없었던 억기가 이날에는 학교강당의 가득찬 군중앞에 나선것이다.

처음에는 입이 굳어지고 혀가 가드라들면서 떠듬떠듬하였지만 그날의 정경이 다시 눈앞에 떠오르자 왜놈쪽발이들에 대한 치솟는 분노로 하여 놈들의 죄행을 폭로하는 말이 폭포마냥 쏟아져나왔다.

그는 경천사석탑도난사건의 현지목격자, 피해자로서 진술과 증언을 하였으며 여러 사람들의 물음에 대답도 하였다.

특히 그는 개성에 갔던 기자가 내놓은 사진을 보고 그놈이 현지에서 도적무리를 지휘한 안경낀 난쟁이 나까다놈임을 확인하였으며 장지연의 친구가 도꾜에 진렬해놓은 석탑을 찍어보낸 사진을 보고는 그것이 경천사석탑임을 명백히 확증하였다.

모임에서는 또한 장지연이 발언하였다. 그는 그동안 은밀히 도꾜에까지 사람들을 보내여 추적해온 경천사석탑도난사건의 직접적인 조직자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까밝히였다.

한양에까지 기여들어 경천사석탑을 백주에 훔쳐오도록 직접 조직하고 지휘한 왜놈이 다름아닌

왜왕궁의 궁내대신 다나까 고겐이라고 폭로하였을 때 모임참가자들은 모두 격분을 금치 못해하였다.

그 무슨 《총독부》라는것을 설치하고 이 땅을 타고앉아 주인행세를 하는 왜놈새끼들뿐만이 아니라 저 바다건너 섬나라의 깊숙한 궁궐에 박혀있는 쪽발이들까지 우리 나라의 문화재략탈에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으니 이 나라 백성은 물론이요 말못하는 산천초목인들 어찌 비분에 떨지 않을수 있으리오.

하여 온 한양장안이 왜놈들을 반대하여 들고일어났다. 왜놈 《총독부》로 돌진하는 시위대렬의 앞장에는 억기도 서있었다.

이를 계기로 한양뿐아니라 개성, 인천 등 여러 지방들에서 대중적인 반일시위가 폭발하자 왜놈들은 당황망조하여 어쩔줄을 몰라했다. 가뜩이나 제놈들의 야만적인 식민지무단통치로 말미암아 조선사람들의 반일기운이 격화되고있는 때에 조선의 민족문화를 말살하려고 백주에 왕릉을 파괴략탈하는가 하면 경천사석탑과 같은 일류급력사유적까지 강탈해간 저들의 죄행이 만천하에 알려지게 되면 어떤 파국적인 후과가 빚어질런지 예측하기 어려웠던것이다.

처음 왜놈들은 어리석게도 이 사건은 어느 나쁜 부랑배들이 한짓같다느니, 혹은 력사학자들이 학술연구를 위해 그랬을수도 있을것이라느니 하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 수작으로 굼때려고 하였다. 그러나 현지도적무리의 두목인 나까다만이 아니라 이 사건의 직접적인 조직자가 궁내대신 다나까 고겐임을 폭로하는 시위가 일어나고 반일시위투쟁이 전국적인 판도에서 벌어질 경향이 뚜렷해지자 왜놈들은 바빠났다.

왜놈들은 교활하게도 무섭게 번져가는 우리 인민들의 반일독립운동을 저지시키기 위해 세계앞에서 마치도 제놈들이 조선을 보호해주고 조선의 문화재를 아껴주는듯 《총독부》를 내세워 유감이라느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강한 대책을 세우겠다느니 하며 속에 없는 수작을 늘어놓으면서 도적질해간 경천사석탑을 반환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렇게 되여 경천사 흰대리석 13층탑은 1918년에 현해탄을 다시 건너 우리 나라로 돌아올수 있었으나 왜놈들의 책동으로 인하여 원래의 위치인 개성 부소산기슭의 탑골이 아니라 놈들의 《총독부》가 있는 한양의 경복궁앞에 세워지게 되였다.

결국 경천사석탑은 자기 조국으로 돌아오기는 하였으나 제 고향으로 가지 못하게 되였으니 이것 또한 왜놈들의 조선문화재략탈행위의 산 증거라고 할수 있는것이였다.

섬나라오랑캐들의 강도적행위에 의하여 감행된 경천사석탑도난사건은 놈들의 야만적인 조선문화재략탈책동에서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와서는 본적지도, 기억하는 사람도 별로 많지 못한 경천사석탑에 대한 이 비분에 찬 이야기를 림종의 시각에 자손들에게 되새겨주며 억기는 이런 유언을 남기였다.

왜놈쪽발이들이 이 땅에 끼친 온갖 피해와 죄악에 찬 만행을 대대손손 절대로 잊지 말고 그 원한을 천백배로 갚아야 한다. 자손만대로 이것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하느니라. 절대로…

(끝)

주소 : 평양 통일신보사 (해외동포여러분의 서면련락주소: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전화: 책임주필실 366—0732, 편집국 366—0522

편 집 위 원 회